

- 나누는 희망, 더하는 행복, 따뜻한 복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합동 워크숍

2019. 10. 24.(목) / 동해현진관광호텔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나누는 희망, 더하는 행복, 따뜻한 복지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합동 워크숍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 공공기관 담당자, 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영역의 상호 협력 및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해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사회복지 업무로 소진된 심신 상태를 재충전 함

I 워크숍 개요

- 일 시 : **2019. 10. 24.(목) / 14시 ~ 19시**
- 장 소 : 동해현진관광호텔 컨벤션홀(4층)
- 워크숍 목적
 - 민·관 협력 우수사례 전파 및 정보교류
 - 사회복지종사자들 내면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의 소진된 상태를 확인하고 타인과 공감대 형성 및 치유하는 방법을 배우며, 심신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보장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 공유 및 논의의 장 마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주요내용
 - 특 강 : 커뮤니티케어(마을공동체) / 2시간
 - 소통과 힐링 : 저녁이 있는 삶 / 2시간

- 대 상 : 15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 : 70명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 50명(각 동별 5명)
 -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 30명
- 주최/주관 : 동해시, 동해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II 세부 일정

일자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24 (목)	14:00	14:20	20'	· 등 록	· 진행 : 유은영 (실무협의체 위원장)
	14:20	14:30	10'	· 인사말씀 · 격 려 사	· 권순일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 심규언(동해시장)
	14:30	16:20	110'	· 특강 : 커뮤니티케어 (마을공동체) · 질의응답	· 김승수 (뚝뚝도서관 관장 및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MC)
	16:20	16:30	10'	· 휴식 (자리정돈)	
	16:30	18:30	120'	· 소통과 힐링 (저녁이 있는 삶) · 자유토론	
	18:30	19:00	30'	· 폐회 및 저녁식사	

※ 교육내용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케어(마을공동체)

김 승 수

(뚝뚝도서관 관장)

하는 척 아닌 해보는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향상 방안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새로운 시선
“사람의 생각이 모아질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역보장, 공동체의 결과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 큰 의미를 두며,
주민의 행복을 말하기 이전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교육이 사람들에게 깨우침도 주는 것은 물론 재미도 있어야 한다.

니콜라이 그룬트비 / 덴마크 시민대학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생기는 내재적 동기

열정

(Pain이 Passion의 숨은 어원이다.)

혁명을 하려면 웃고 즐기며 해라.

D.H. 로렌스/ 제대로 된 혁명

**작은 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틀림없이 모기와 함께 잠을 자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아리아나 허핑턴

Know! Why?

우리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만일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등의 일을 하지 마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 썩떡취베리



**완벽하지 않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

항해 vs 표류

윗 세대에서 배운 공동체적 경험은 그렇게 또 아래 세대,
그 아래 세대로 지속해서 환원, 순환됩니다.

상추를 심는 데 잘 자라지 않는다면 상추를 탓하지 마세요.
왜 잘 안 자라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비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물이 더 필요하거나, 햇빛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상추를 비난하지 마세요" / 틱낫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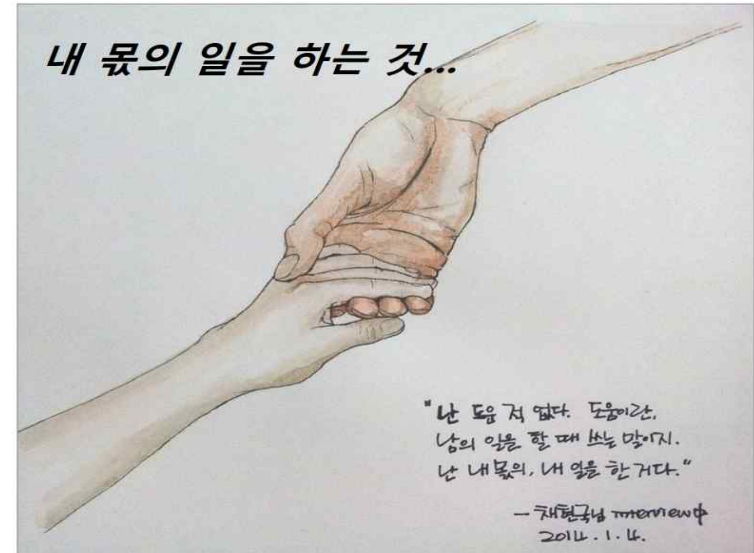




대한항공 가족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행동하는 어른을 닮아갑니다.



당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것은 당신의 말이 된다.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라. 그것은 당신의 행동이 된다.
행동을 늘 되돌아보라. 그것은 당신의 습관이 된다.
습관에 늘 신경 써라. 그것은 당신의 가치관이 된다.
가치관을 살펴보라.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된다.

생각/언어 **행동/습관** 가치/운명

좋은 이웃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살면 된다.
말과 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

안다

혁신, 나눔, 소통, 사랑, 연대, 협동, 네트워크 따위의 개념어를
실천을 통해 자신의 삶을 통과하며 이해하고 깨우치게 될 때

실천

세 살 먹은 아이도 쉽게 알 수 있으나
백 살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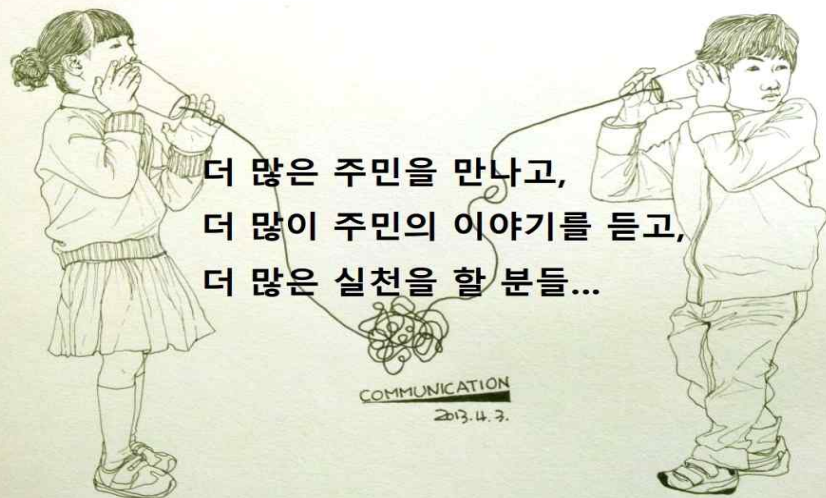
공동체는 **동행**입니다.



스프링백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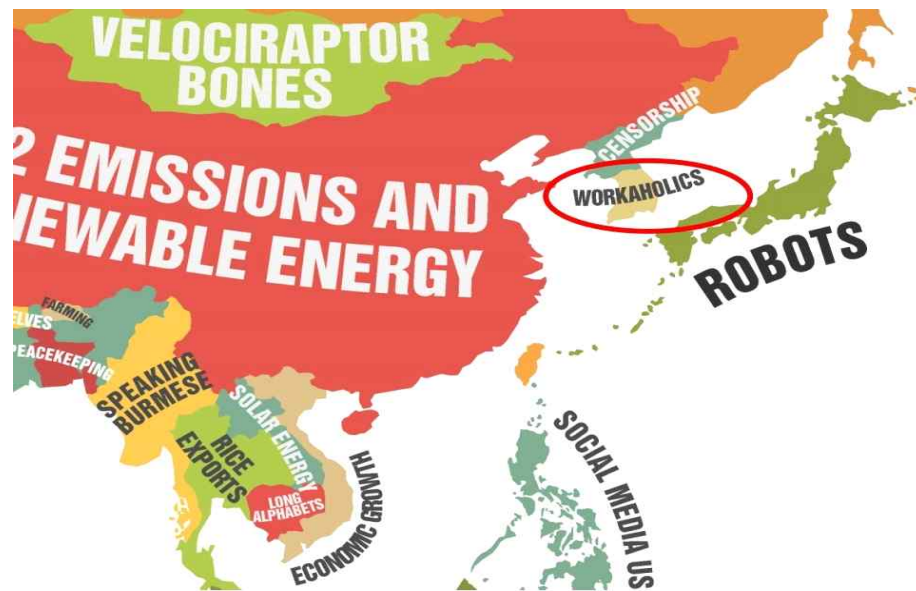
먹이차지를 위한 목적없는 집단 달리기



강이나 절벽에 다다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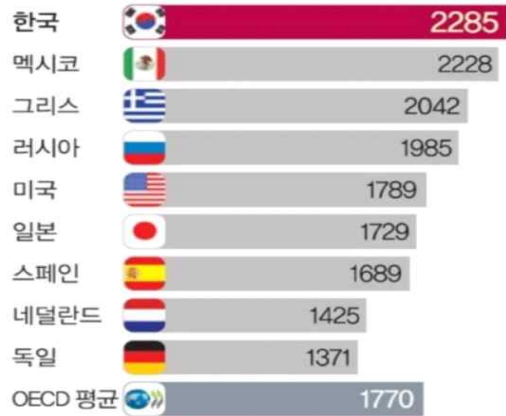


WHAT EACH COUNTRY LEADS THE WORLD IN



OECD 주요국 연간 노동시간

(단위: 시간, 취업자 기준, 한국은 통계청 자료 추산)



자료: OECD,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삶은 속도일까요? 방향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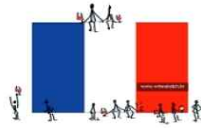
그렇게 **열일** 하지만 중산층도 못된다.

한국

한국의 중산층 기준

(직장인 대상 설문결과 / 경제의식)

1. 부채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2. 월급여 500만원 이상
3. 자동차는 2,000 CC급 중형차 소유
4. 예금액 잔고 1 억원 이상 보유
5.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 것.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

(퐁피두 대통령이 Qualite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 / **문화의식**)

1.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2.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3. 다들 줄 아는 약기가 있어야 하며
4.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5.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
6.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영국의 중산층 기준

(옥스포드 대에서 제시한 중산층 기준 / **신사정신**)

1. 페어플레이를 할 것
2.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3.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4.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5.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미국의 중산층 기준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 / **시민의식**)

1.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2.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3.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4.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비평지가 놓여있을 것



특이점:

한국은 **돈**과 다 관련있다.

한국은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다. 노력해도 이루기 어렵다.
한국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인간은 절대 혼자 살수 없다.

주변의 삶을 살펴야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소유적 삶 vs 존재적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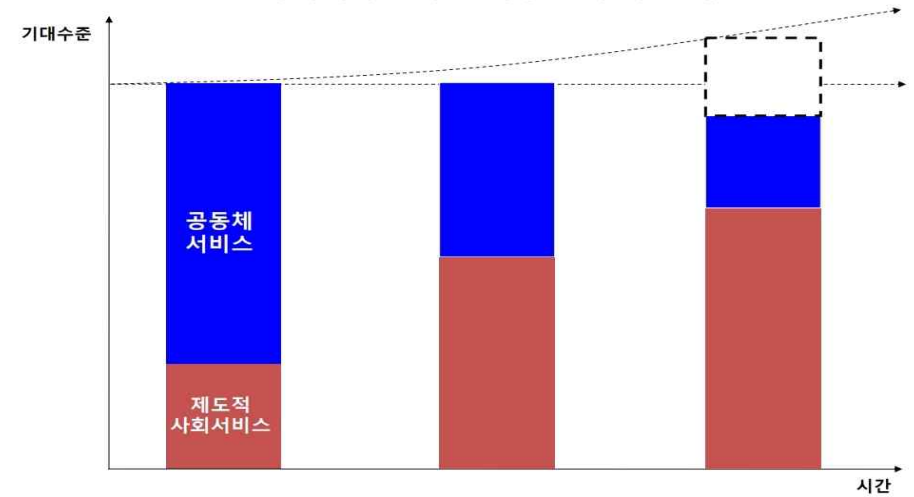
(소유지향을 존재지향으로)

학습, 대화, 독서, 권위의 행사, 지식, 사랑

[에리히 프롬]



사회서비스 기대 수준은 증가하지만
사회서비스의 절대량은 부족한 지금



완벽하지 않게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



'함께 살기'를 위한 공감의 제도화
Empathy



공감하기

자신의 테두리 밖으로 살짝 나와서 여행하는 일
자신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 결국 감정이입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경험을 나누고, 비판하고, 행동하기)

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

이탈리아에서
1950년-70년까지 20여년의 연구결과
복부 vs 남부

[푸트남]



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

공동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도와주는
공통된 규범, 신뢰, 네트워크

[푸트남]

공익정신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공공재, 두 죄수의 딜레마, 집합행동의 논리

[하딘]



강원도 정선



강원도 평창

공동체에 필요한 사회적 자본을 높이는 방법

공동체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도와주는 방법

무임승차에 대한 규제와 강제의 규범

(공유재+공동체+사회적 규약)

[푸트남]



**마을, 공동체 활동은
함께 할 때 더 즐겁습니다.**



소통과 힐링(저녁이 있는 삶)

김 승 수

(뚝뚝도서관 관장)

저녁이 있는 삶, 재충전의 시간



가치, **쉽, 그리고 돌아보기**



똑똑도서관
김승수



보람, 가치, 의미와 재미를 말하기 이전
충분한 **쉽**과 성찰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소진의 과정



열정-침체-좌절-무반응

Pain 이 Passion 의 숨은 어원이다.

상추를 심는 데 잘 자라지 않는다면 상추를 탓하지 마세요.
왜 잘 안 자라는지 이유를 찾으세요.
비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물이 더 필요하거나, 햇빛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상추를 비난하지 마세요"

틱낫한



**But 우리가 겪고 있는 소진을 개인의
탓이라고만 말 할 수 있을까?**

공과사

개인과 가족의 짐을 사회로 덜어주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일상속 작은 행복

행복하지 않다면 두가지 변화를 꾀할 수 있다.

하나는 삶의 조건, 사회적 구조를 낮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 영혼의 상태를 낮게 하는 것이다.

첫째는 늘 가능하지 않지만, 둘째는 늘 가능하다.

톨스토이



Q. 언제 행복하니?

미국에서는 노예보다 노예의 소유주들이 자살률이 높았다.
노예는 블루스나 재즈를 연주하고 노동요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런 문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찬호 / 유머니즘

“그냥 저녁 먹을 때?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게 좋은거 같아요”

“저는요. 별거 없고요. 가족이요, 제 공부 가르쳐 줄 때랑요, 서로 있었던
일들이랑 고쳤으면 좋겠는 거 이야기 하면서 같이 밥먹는거요.”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2014)



우리 삶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들)



대한항공 가족을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유일한 자신의 삶조차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한 자가 미래에서 온 아이의 삶을 함부로 손대려 하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월권행위이기에

Children See, Children Do



우리가 닦아갈 지향점이 필요하다.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이미 뻔한 일에 집중하는 척 하지 않고,
어찌될지 모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

삶

삶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다.

그러므로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집중함이 옳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떻게 재미있고, 의미있고
몰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인생이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지 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찾아야 하는데, 궁극적으로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다.

삶의 방식 바꾸기 시간, 돈, 사람

행복한 삶은 장시간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면
행복한 상태가 된다.

첫째. 시간 잘 쓰기

둘째. 돈, 포화점이 없음을 인식하기



생텍쥐페리의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가르쳐준 비밀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네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네 장미꽃을 위해서 소비한 **시간** 때문이라고.



우리사회의 물신화
이것을 인간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가까운 사람에게 집중하기

커넥티드:

행복은 주변사람으로부터 전염된다. 즉, 환경이 마음을 지배한다.



무엇이 잔뜩놓여진 테이블위에
커피를 쏟았다면 무엇부터 잡을것인지?

사람의 행동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환경을 바꾸면
행동을 변화될 수 있다.

Family + Friends

일상에서 답을 찾다.



#16
2013.11.20



일상에서 소외된 행복은 없으며
누구에게나 일상은 있다.

결국, 행복은 특별하지 않다.
일상을 위한, 일상에 의한, 일상의 행복

그러나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특별한/새로운/독특한 무언가를 찾기 시작한다.



75/2014.10.22
B/S
똑같이 주어진 시간
그러나 다른 삶

#43 2019. 9. 15



저는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너무 치고 싶었어요.

교회의 종지기가 차임벨로 사라졌다.
학교의 종은 컴퓨터가 대신한다.
4차혁명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사람은 무엇을 해야할까?



기도를 할 때는 발을 움직여라.



일상에서 소외된 행복은 없으며
누구에게나 일상은 있다.

똑똑도서관 김승수

soskim@gmail.com
010-5263-5783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긴급복지지원 제도

▶ 도입 배경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餓死) 사건

4살 어린이 영양실조로 사망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듯 발견 당시 전신이 썩마른 상태였다.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05.12.23.), 시행 ('06.3.24.)

1 긴급복지지원 제도

목적



-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기본 원칙



- 선지원 후조사 원칙:**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않음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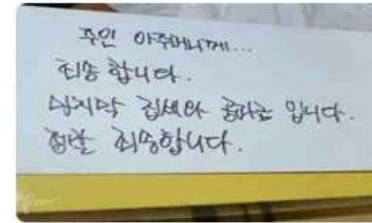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 사건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제량 확대 및 소득 계산기준 완화

잠깐! 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복수를 끊은 사건이다. 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필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짐새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 개요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추진 배경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발생



2018년 4월 증평군 모아과에서 40대 여성이 새 산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남편과 사별 후 빛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사망 후 세 달이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8.12.11.) 시행(19.6.12.)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과정의 긴급복지사업의 실효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사업장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신고의무자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 읍·면·동 주민센터
- 초·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이동상담시설,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상담센터 등)

- 공무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학원 및 보습소 직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 청소년 상담연계 종사자
- 청소년 보호·생환센터 종사자
-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 이·동장
- 현상유예국 직원
-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신고의무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신고방법

▪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우선 신고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대상 기준

위기상황의 발생 + 소득·재산 기준 충족

⚠ 위기상

1. 주소주거의 사망, 가난, 병역달면, 구급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폭행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주거 또는 주소주거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주거 또는 주소주거의 파괴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의 따라 **적자회로**로 인한 차주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이(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부·가스 중단, 사회복지회로 부속임차로 해당 등
9. 그 밖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된 요지하는 경우
- ① 주소주거의 이혼 ② 만년 ③ 고령시설 입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인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소득을 잃는 경우
- ⑤ 적자회로 부속임차로 인한 차주회로 또는 차주회로 회생 등으로 인하여 부속임차로부터 생계가 곤란하고 유급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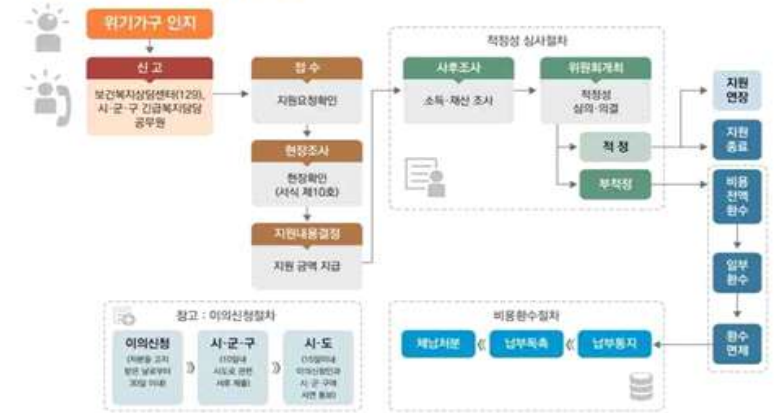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소득·재산기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절차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그림으로 보는 보호절차



5

긴급복지지원 내용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긴급복지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

생계지원

-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1인 441,900원, 4인 1,194,900원 등)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 지원예시 : 주소특자의 사망 또는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의료지원

-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치료의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최대 300만원)
-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2회)
- 지원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주거지원

-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지역 및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2019년 4인 가구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액 예시

 대도시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
--	---	--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최대 12개월)
- 지원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소(유택방 등)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더 알아보기

(의료기관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내용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1인 535,900원, 4인 914,200원)
- 지원기간 : 원칙 1개월 (최대 6개월)
- 지원예시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지원

- 대상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종류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가. 의료기관 종사자

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 입원자 및 퇴기 난치성 질환자의 경우 보건소 지원사업 우선 연계함
 -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악화되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
범위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
- **지원가능 항목** : 300만원 이내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
 - ※ 급여화 된 상급병실은 불가피한 이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최대 5일 (감염 및 전염 사유 제외)
- **지원불가 항목** :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비급여 입원료 및 식대·보호자 식대 등
-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 건강보험(연간 101만원), 의료급여 1종(매 30일간 5만원), 의료급여 2종(연간 80만원)
 - ※ 의료지원 금액 결정 시 본인부담금을 우선 지원

가. 의료기관 종사자

▶ 긴급의료비지원 절차



Q&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나. 노숙인 시설 종사자

지원 대상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로서 **노숙한지 6개월 미만인 노숙인**

신고 방법

-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 후 시군구청장에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서식 제13호 긴급지원 의뢰서**)

협조 사항

- 신청한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신고관련 Q&A

1.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시 현장방문은 필수인가요?

A. 현장방문이 원칙이나 유선확인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위기사유는 2년이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 요망)

신고관련 Q&A

4.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 소득·재산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사유의 경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불가능합니다.

6. 위기상황의 발생 및 재산·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최초 지원의 경우 현장확인 및 증빙서류(동장거래내역 등)의 제출로 결정되며, 이후 금융재산 조회 등을 통해 사후에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EMO ◆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area below the header. It is intended for handwritten or typed notes.

◆ MEMO ◆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area below the header. It is intended for handwritten or typed notes.

◆ MEMO ◆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area below the header. It is intended for handwritten or typed notes.

◆ MEMO ◆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area below the header. It is intended for handwritten or typed notes.